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① 대승불교와 화엄경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상은 모두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요청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교 사상 또한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대승불교가 출현하는 서력 기원의 인도는 이민족들이 계속 침입해 서부 인도를 지배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다. 그리고 여러 이민족들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도에 들여와 그것이 인도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 대승불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 시대 민중들의 필연적인 요청에 의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는 종교 개혁사상에 의해 등장하는 새로운 불교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 즉 석존이 뜻한 불교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으려는 사상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불교운동의 표면적인 동기는 부파불교 교단의 개인수행 중심의 출가주의와 학문화하고 철학화 되어 실천이

따르지 않게 됨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관념적인 불교 이해 방식을 비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진정한 동기는 불타에 대한 신앙과 원시불교시대의 불타의 삶으로 돌아가 현실 생활 속에서 대중을 널리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같이 불타가 수행을 통해서 갖추고 있는 덕(德)을 자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성불에 이르러 고자 하는 보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살은 원래 재가자의 신분이며 사회적 인간이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격체였다. 모든 인간을 구제의 주체로 자각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한 그들은 보살행을 실천하여 진정한 인간의 삶을 꽃피운 불타의 삶 속에서 구제의 결정적인 계기를 찾고 그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지표(指標)로 삼아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불타에 대한 신앙이라는 새로운 구제 방법론과 불타의 삶 속에 내재한 구제 방법을 탐색하여 자비 이타행이라는 최고의 실천 이념을 창출해 낸 대승불교운동은 여러 갈래로 전개되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있는 화엄경 또한 이러한 대승정신에 입각하여 독특한 보살도를 설하는 경전이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근본법륜(根本法輪)이라 하여 석존이 성도하고 나서 곧바로 스스로 깨달으신 진리 내용을 그대로 살한 근본적인 설법이라고 하여 왔다. 분명히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 원시불교에서 보이고 있는 석존의 성도와 수행 사실을 충실히 이어받으면서도 대승불교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비 이타의 보살도 사상으로 그것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중생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르침이라고 하여 일승법교(一乘敎)라 일컬어져 왔다. 그것은 화엄경의 가르침이 전통불교인 성문이나 연가의 가르침인 이승(二乘)을 분명하게 부정하고 보살로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만이 진실한 깨달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종교 개혁적인 대승불교의 입장이 뚜렷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약력

권탄준(1950년)교수는 7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92년 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 불교학부 교환 연구원과 동국대 불교문화원 전임 연구원등을 역임했고, 현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와 불교대학원 겸임 교수를 맡고있다.

자비이타행의 실천이념 주창

깨달음 향하는 보살의 길 제시

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불타의 중생에 대한 자비행동의 예찬과 그 힘이 무한하다고 느끼므로써 비롯된 종교인 것이다.

대승불교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살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승 불교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수행자들이 불타가 보살이었을 때의 수행을 본받아 현실 세계 속에서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혜나 자비와

사상을 담고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경전을 출현시켰다. 이들 경전에는 새로운 불타관(佛陀觀)·불신론(佛身論)을 비롯하여 세계관(世界觀)·수행관(修行觀) 등의 방면에서 이전의 경전에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각기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상이 주창되고 있다.

대승경전의 백미(白眉)라고 일컬어지고

도 닦는 이들이여! 그대들 눈 앞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곧 밖에서 찾지만, 착각하지 말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만 법은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 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버려두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들이 10년 법을 구하여 돌아 다니는 것보다 더 낫다. 나의 견처에는 많은 것이 없다. 다만 평상(平常)하게 웃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나(我)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도(道)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자성(自性)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된다. 아무리 멀어도 눈 앞을 벗어나지 않으며, 낫기를 떠나지 않으며, 머리 속을 넘어서지 않는다. 도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가깝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지금 이렇게 도를 묻고 찾는 움직임과 한 덩어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는 지금 눈 앞에서 낫가에서 머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한 덩어리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눈 앞에 나타나 보이거나 낫가에 울려 들리거나 손 안에 잡히는 그런 사물은 아니다. 도를 확인하는 경험은 평소 우리가 사물을 알아차리는 경험과는 성질이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도에 관해서는 어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변함없는 공간

비교하기도 하고, 이 방식 좋은가 저 방식 좋은가 하고 따지고 하고, 어떤 방은 기억 속에 담아 두기도 하고, 어떤 방은 쉽사리 잊어버리기도 한다.

수 많은 다양한 새로운 모습의 방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의식의 한

고 찾아보고 알아본 경험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다. 방의 구조나 벽지나 가구나 치장이라는 모양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과 공간을 깨닫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공간을 깨닫게 되면, 이 공간이야말로 그 수 없이 다양한 모양의 방들에서도 한결같이 방이 방일 수 있도록 해주는 본질적 요소만이 명명백백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또 방들의 수없이 다양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변함 없이 그 모든 모양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언가 안심시켜주고 안정되게 해준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 경험하는 의식이 바로 이러한 방 구경과 같다. 의식에서 경험하는 내용은 늘 다양하기가 한정이 없지만, 그 모든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함 없는 것은 의식의 허공이다. 수 많은 모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허공이 늘 이 자리에 있어서 안정을 주고 있다. 이 허공을 깨달아야 한다.

김태원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원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6-456-8857(강보명) http://www.mindtree.net/

모든 것 포용하는 ‘허공’ 같은 마음이어야

추측이나 예상도 알맞지 않다.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마다 구조며 벽지며 가구며 치장이 제각각 다양하고 독특하여 서로 잘 구별된다. 우리는 각 방마다 들어가서 제각각 다른 모습을 보느라고 정신이 빼앗겨 있다. 그리하여 수십 개의 방을 거치면서 방마다 다른 모습에만 관심이 쏠려서, 이전 본 방과

구석에는 변함 없이 한결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음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문득 어느 순간 이렇게 다양한 치장물들은 방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라 다만 가변적인 것일 뿐이고, 진실로 방의 제거할 수 없는 본질은 내가 들어와서 걸어다니고 치장물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금까지 방을 돌아보

강길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1>



연재를 시작하며

“불교와 의학”이라고 하면 얼핏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의 사립다운 삶에 관한 모든 것이요 의학은 인간의 질병과 그 치료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간이 고(苦)의 바다에서 해매는 원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포함하여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내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의 진리는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룬 자리에서 큰 직관지(直觀智)를 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 만생을 남김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명>이라는 저술에서

를 가지고 발달한다고 하였고,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인체는 세 가지 구조로 발달한다고 하였고(삼신설), 감각기관이 발달하면서 탐욕과 집착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면서 인간의 마음에 관하여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셨으며(유식학), 물질에 대하여 인간들이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에서 물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하셨다(구사론). 이 부처님께서 살하신 물질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육체와 그 구조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죽은 후에 남겨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살아 있을 때의 집착 때문에 또 다른 육체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불교와 의학”이라는 제목을 연재하면서 주로 “불교에서 배

‘마음’ 빠진 유물주의 현대의학 한계
불교진리, 의학 발전에 도움될 것

20세기의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과 부처님의 지혜 수준을 비교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 값은 400점이라고 하였고, 부처님은 1,000점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대각의 지혜 수준과 인간 중에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잘 해석해서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밀려들고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 인간이 수정하는 순간에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생명을 시작한다고 하였고, 엄마의 배속에서 태이는 몸과 마음이라는 이중 구조

유는 의학”이라는 자제로 글을 써볼 생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의학은 첨단 과학의 모든 것을 응용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은 본래부터 유물주의 의학이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로부터 의학적 진리를 찾아 내어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면 오늘날의 의학을 몇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충남의대 산부인과학 교수

1943년생, 196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 1973-1978년: 서울대학 병원 인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 수료, 1983-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88-1989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교환교수



그림 · 문병성